

“태권마을, 태권도 메카 빌리지로”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원

황인홍 무주군수, 서울 국기원 개최 ‘태권마을 자문회의’ 서 밝혀

황인홍 군수가 지난 4일 연내 들어 설 ‘무주태권마을’을 전 세계 태권도인을 아우르는 태권도 메카 빌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 소재한 국기원에서 태권도 기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태권마을에 대한 자문회의 자리에서다.

태권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분양 자격 기준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이동섭 국기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이 함께했다.

황 군수는 “세계 태권도 성지인 태

권도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로 태권도 사범들의 귀국 후 정착을 위한 정주 공간 조성 및 관광 명소화를 위해 태권마을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여·야 유력 후보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되어 있는 만큼 향후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태권도 기관·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여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무주군청 문현중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태권마을에 대한 추진목적, 사업개요, 추진 상황 및 향

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분양 자격 기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태권마을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668-1번지(태권도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주택용지 필지는 총 39개 획지로 가구당 100~200평 규모로 부대 시설로는 수련·교육 시설인 태권커뮤니티센터와 힐링·체험 시설인 힐링테라피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분양 가격은 조성원가 산정 후 감정 평가를 진행해 결정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4월부터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

진안군이 올해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보건소 건강증진팀(430-8513, 8539)에서 가능하며, 출생아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 포인트)을 지급한다.

바우처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

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범위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지급목적에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안군은 출생아 바우처 지원 이외에도 임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 등록관리, 임신부 이송지원비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출산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고원물입점농가 필수교육·사업설명회 실시

진안군은 지난 4일 진안고원물입점농가 등의 역량강화 및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입점농가 및 업체에 대한 기본 필수교육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진안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인 ‘진안고원물’ 입점농가 및 업체에 대한 역량강화 기본 필수교육과 신규입점안내·지원 및 혜택 등의 설명회를 연이어 진행했으며,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입점농가 및 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춘성 진안군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안고원물’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상품관리 및 배송정책, 고객응대 기본교육’, ‘진안고원물 고객감동 마케팅 및 홍보’의 3개 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에 이어 신규입점농가 및 업체에게 입점안내 및 지원과 혜택 등을 소개했다. 끝으로 의견청취의 시간을 갖고, 현재까지 진안고원물 운영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공모사업 선정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에 설치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4천만 원을 확보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품목을 발굴하고 재배방법 등에 관한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무풍사과단지 내 아리수와 홍로 품종이 식재돼 있는 1,150㎡ 구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사업비 2

억 원 국비 1억4천만 원, 군비 6천만 원)하고 3년 간 사과품목에 대한 생육 상황과 생산성, 품질, 재배기법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김영종 소장은 “과원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로 인해 사과나무에 닿는 일조량이 달라지는 등의 미세한 환경의 변화가 사과 생산량과 품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는 게 연구의 핵심”이라며 “적합성이 밝혀지면 영농활동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 또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것인 만큼 실증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설비로 인한 차광 문제점은 반사필름 타이백 파복(햇빛 투과율 향상 효과)을 통해 개선한다는 계획으로 무주군은 이번 실증연구를 토대로 과학영농 기반시설 확충과 작물 연구능력 향상, 특화작목의 과학영농 강화, 스마트농업 현장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사과수확 체험 모습.

무주군,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무주군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풍수해보험 자부담 비용을 완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군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군민들이 재난시 정부 지원금과 무주군 추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주택은 최대 91%, 온실과 소상공인은 최대 79%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해 무주군민의

경우 1,730가구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했으며, 같은 기간 총 1천451만7천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개 민간보험사(DB손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해상, KB손해,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희망자는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5개 민간보험사(02-2100-5103~7)로 문의·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이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공장(소상공인) 시설물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가축전염병 방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장수군은 봄철 야생멧돼지 개체수 증가와, 야외 영농 본격화 등으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군은 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실시,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며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이 경북도, 충북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봄철 멧돼지 번식에 따른 개체수 증가, 감염 개체의 광범위한 남파 확산 등으로

방역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군은 8대 방역시설의 안정적 사후 관리를 위해 방역인프라 구축,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등 2억 5,000만원의 예산 지원과 방역시설 개선을 위한 주기적 방역점검 등 철저한 차단 방역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종진 축산과장은 “봄철을 맞아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양돈농가 종사자들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드린다”며 “축사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편호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단 운영

무주군이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단(이하 영농폐기물 수거단)’을 운영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단은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활동은 상(3~4월)·하반기(11~12월)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이 고령화되면서 영농폐기물의 수집과 수거, 운반 등이 힘들어져 불법 방치되거나 쌓이는 폐기물도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단은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별로 2~3명씩 배정돼 담당 지역을 순회하며 농경지 곳곳에 방치되거나 정해진 장소로 배출된 폐비닐과 농약공병 등을 수거·분리·

선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후 읍·면 보관시설에 모아둔 영농폐기물을 적환장으로 이송하는 일은 각 읍·면에서 맡아 진행하며 무주군에서는 마을별로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영농폐기물 수거단 활동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경아카데미를 활용한 직무교육을 비롯해 노무팁과 협조한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장비(마스크, 모자, 장갑 등) 지급 및 착용 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박영석 팀장은 “영농폐기물 분리 배출과 수거에 대한 주민동참과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아이미소 부모힐링’ 운영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가족이 함께하는 ‘아이미소 부모힐링’ 프로그램을 장계면 거주 초등학생 자녀를 둔 7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가구는 운동기구, 미니 정원 만들기 키트, 퍼즐 등을 배부받아 가정에서 커뮤니티에 공유된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수행 미션은 ▲신체활동 동영상을 따라하기 ▲미니정원 만들기 ▲퍼즐 맞추기 ▲도서관 가기 ▲천변 걷기 등이며,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담은 인증샷을 공유하면 상품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참여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아이미소 부모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고편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